구미지회,경북 안전보건인 산업 재해예방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가져

대한산업안전협회 구미지회(국장 이윤호)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노·사·정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제고로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23일 금오공과대학교 체육관에서 구미지방노동사무소와 함께 '경북 안전보건인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홍지 회장 및 임직원을 비롯해,김규식 구미시 부시장,정용택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차이관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미지도원장 등 250여명의 안전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안전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참석한 안전인이 솔선 수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보건환경통합관리」 교육인프라 구축

국내 최대이며 최초로「보건환경통합관리」교육인프라가 구축된다.

신흥대학 특성화사업단의 서종원 교수(환경위생과)는 지난 8월 22일 "산업위생·환기·방재 전문위원회"에서 "선진국민 보건환경 전문인력 집중육성 프로젝트"의 주제 발표에서 2006년까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증대를 위한「보건환경통합관리」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은 서종원 교수의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하여 2006년을 자립시기로 보고,프로젝트의 성패가 가리는데 모든 계획이 현장 위주로 산·학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평하였다.

APOSHO 20차 연차총회 북경서 개최

아시아 · 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인 APOSHO 20차 연차총회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올림픽'이라 일컫는 이번 연차 총회는 우리나라를 비롯 아태지역 20여개국 및 미국, 영국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책임자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특히 세계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관심이 지대하다.

이번 총회는 주체가 중국 직업안전건강협회지만 공동주최기관으로 중국안전환보연구원, 중국석탄공사가 후원기관으로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중국노동조합연맹 등이 나선다.

또 이번 총회의 주제는 '사회 · 경제와 산업안전보건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중소기업안전보건, 산업안전 홍보교육, 공공지역안전 등 11개 세부 주제별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도 총회참석을 위해 현지로 떠났다.

한편 이번 총회의 연계 행사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 소재 세계무역센터 전시홀에서는 국제 산업안전보건 전시회도 개최되는데 주요 전시내용은 개인보호구에서부터 각종 안전보건장비, 엘리베이터, 교통 소방안전 등 각 부문에 대한 제품 전시와 관련 비즈니스 상담도 이뤄진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98건 화재 발생

올 상반기 중 전국에서 하루에 98.2건꼴로 화재가 발생, 1.7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은 올 상반기 화재발생 분석을 통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 동기 대비 7.9%, 1,319건 증가한 17,949건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13명, 부상 996명으로 조사돼 전년대비 19.5% 감소했다.

원인별로는 전기, 담뱃불, 방화 순으로 순위변동은 없었으나 전기화재가 1.2% 감소한 반면, 담뱃불(17%), 방화(3.7%)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장소별로는 주택과 아파트 화재는 5% 증가했고 차량화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이번 집계를 통해 지난 7월 13일 경남 함안의 김치공장 화재와 같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공장, 할인매장의 화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의 집계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는 3,440건으로 230명의 인명피해와 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2004년도 자율안전관리업체 발표

노동부는 공사실적액 순위 3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01, '02, '03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95개의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였다.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엘지건설(주) 등의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향후 1년간(2004. 8. 1 ~ 2005. 7. 31) 착공되는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게 되고, 해당공사현장은 공사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단,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실시)

순위	건 설 업 체 명	비고
100위이내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엘지건설(주),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에스케이건설(주), 풍림산업(주), 삼성중공업(주), 쌍용건설(주) 금호산업(주), (주)태영, (주)한화건설, 두산중공업(주), (주)부영, 삼성엔지니어링(주) 계룡건설산업(주), 삼부토건(주), (주)동양고속건설, 금강종합건설(주), 남광토건(주) 화성산업(주), 신세계건설(주), 신성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삼호, 경남기업(주) (주)중앙건설, 보성건설(주), (주)대동종합건설, 성원산업개발(주), (주)반도, (주)신창건설, 일신건영(주), 삼능건설(주), 씨제이개발(주), 마스타건설(주), (주)신일, 한솔건설(주), (주)대저토건, 울트라건설(주), 세양건설산업(주), (주)건영, (주)신안, 삼성에버랜드(주), (주)제일건설	47개업체
101위~200위이내	태평양개발(주), 남해종합개발, 남광건설(주), 진흥기업(주), 우미건설(주), 남화토건(주), (주)금강주택, 대보건설(주), (주)유성건설, 케이티건설(주), (주)운암건설, 삼풍건설(주), 신도산업개발(주), 제일건설(주), (주)협성종합건업, 신한종합건설(주), 흥한건설(주), 영도건설산업(주), (주)서광, (주)우미토건, 동신건설(주), 우신건설(주), (주)동일토건	23개업체
201위~300위이내	대창기업(주), (주)남흥건설, (주)한창건업, 금강종합건설(주), 홍인건설(주), 신화건설(주), 동성건설(주), 남양진흥기업(주), 동일건설(주), 기산종합건설(주), 서진산업(주) (주)대건, 화남건설(주), 삼흥종합건설(주), 동서종합건설(주), 흥진건설(주), 세기건설(주), 신화종합건설(주), 풍창건설(주), 르메이에르건설(주), (주)두국건설, 남진건설(주), 삼보종합건설(주), 유림건설(주), 성우건설(주)	25개업체